

-기 시작하다

~하기 시작하다

-기를 바탕으로 한 고정 패턴 중 하나입니다. 만들기는 간단하며, 주의할 점은 시제를 어디에 붙이느냐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기 시작하다	배우다 → 배우기 시작했어요
ㄹ 어간은 ㄹ 유지	-기 시작하다	만들다 → 만들기 시작했어요
시제	시작하다에 붙임	배우기 시작할 거예요
형용사	-아/어지다를 거침	추워지기 시작했어요
명사와 함께	명사 + 을/를 시작하다	공부를 시작했어요
시제를 붙이지 않음	어간 + 기	배웠기 시작했어요(×)

■ 언제 쓰나요

어간에 -기를 붙이고 시작하다를 활용합니다: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모음 규칙이 없고, ㄹ은 유지되며, 시제는 시작하다에만 붙습니다.

다른 -기 패턴과 마찬가지로 -기만 허용합니다. -는 것을 시작하다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
이 표현은 동작 동사에 붙습니다. 상태가 변하기 시작함을 말할 때는 먼저 -아/어지다를 거칩니다: 추워지기 시작했어요가 춥기 시작했어요보다 자연스럽습니다.

시작하는 것이 이미 명사라면 시작하다가 바로 목적어로 취합니다: 공부를 시작했어요, 회의를 시작합니다.

■ 예문

- 1 작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
- 2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
- 3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.
- 4 요즘 김치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.
- 5 십일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요.
- 6 다음 주부터 운동하기 시작할 거예요.

■ 비교

-아/어지다
-아/어지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, 기 시작하다를 더하면 그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표시합니다. 두 표현은 경쟁하지 않고 겹쳐 씁니다.
추워졌어요. (추워졌다) / 추워지기 시작했어요. (추워지기 시작했다)

-게 되다
-게 되다는 어떤 상황이 생겼음을 전하고, -기 시작하다는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짚어 줍니다.
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. (배우게 되었다) / 배우기 시작했어요. (배우기 시작했다)

명사 + 시작하다
명사형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 편이 더 짧으며, 글이나 공지에서 흔히 씁니다.
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/ 공부를 시작했어요.

■ 주의

- ✗ 작년에 한국어를 배웠기 시작했어요.
- 작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
-기는 시제를 가지지 않습니다. 과거는 시작하다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.
- ✗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요.
-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
이 패턴의 시작하다는 쉽다, 어렵다, 전애와 마찬가지로 -기만 허용합니다.
- ✗ 십일월부터 춥기 시작해요.
- 십일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요.
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므로, 시작하다가 그 시작을 표시하려면 먼저 -아/어지다로 변화를 나타내야 합니다.